

## 애꾸눈 왕의 초상화



최기형 교감 선생님

옛날 옛적에 한쪽 눈알이 없어 흉한 모습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아가던 애꾸눈 왕이 늙어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불러온 이름 난 화가는 터럭 하나까지 흠 잡을 데 없이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용측한 자신의 애꾸눈이 보기 싫었던 왕은 그 그림을 찢어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매우 눈치 빠른 화가가 눈알이 없는 자리에 아름답게 눈동자를 그려 넣고, 주름도 말끔하게 없앴지만, 왕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쫓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며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는 애꾸눈이 아닌 정상적인 눈만 보이는 옆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 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인간과 세상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애꾸눈 왕의 초상화 그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 교사, 학교의 모습 또한 '애꾸눈'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나 인성 면에서 모두 1등급인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실력과 덕성을 완벽하게 겸비하여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는 또 얼마나 있을까요? 인성과 실력을 기른다는 학교 또한 '교실붕괴', '학교폭력', '학력저하' 등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바로 '애꾸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의 구성원들은 모두 '애꾸눈'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교육자적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찌푸린 얼굴을 사실 그대로 그려서, 학생 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가끔 학부모님들 중 '담당선생님과 면담하기가 겁이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면담 후에 심지어 눈물을 보이는 분

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수업시간에 잠만 잡니다.' '교칙을 어겨 벌점이 쌓였습니다.'라거나, SKY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가겠지 했는데, '담당선생님께서는 'in서울 어렵습니다.'라고 참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학교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박학다식의 실력파이고 열정이 넘치는 A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애꾸눈'밖에 안 보이는지, 방과후 학교 강좌 선택에서 자주 인원수가 줄어들다. 제가 보기엔 야간이나 휴일에도 학생지도에 참 헌신적인 B선생님인데, 그 반 학부모님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좀 무뎠던 모습의 '애꾸눈'만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어떻게요. 야간은 물론 휴무토요일도 없는 자율학습은 기본이고, '방과후학교' '심화수업' '튜터링' '논술수업' '기초학력반' 등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름 교육력을 높였고, 진학지도도 잘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 뿐 아니라 3년 연속 인천시교육청 지정 효행실천과 봉사활동을 참 잘하는데... 수·과학 경시대회, 실험대회에서도 매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목고의 그늘에 가려 수능성적이 낮은 '애꾸눈'만 보이거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애꾸눈이 아닌 정상적인 눈이 보이도록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데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또한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때로는 무뎠던 모습 보이거나 매정하게 느끼더라도 '관심과 사랑'의 옆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어려운 지역형편과 예전과 판이한 일반고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75년 전통의 명문사학 동산고'의 정상적인 옆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



〈삽화 : 현용안 선생님〉